광양시,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5월부터 11월까지 전통예술·e스포츠·영화제·미디어아트 등 대규모 행사 7개 개최

광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7개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광양시의 문화예술행사는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시작으로, 젊은 세대의 열정을 담은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작발레, 주민 화합을 위한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남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담은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영화 애호가들을 위한 ▲남도영화제,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일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까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펼쳐진다.

□ 2025 굿보러 가자

‘굿보러 가자’는 2004년부터 20여 년간 총 121회에 걸쳐 진행된 국가유산진흥원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개최지를 선정하며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다.

광양시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개최지로 선정됐다. 오는 5월 29일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열리는 ‘2025 굿보러 가자 인 광양’은 무형유산과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전통예술 공연으로,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광양시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공연에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지역 무형유산 전승자, 청년 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옴니버스 형식의 다채로운 전통예술을 선보인다. 또한 국악인 오정해가 사회를 맡아 공연의 깊이와 품격을 더할 예정이다.

□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7월에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제2회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남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목은 FC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등 인기 게임으로 구성됐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결선은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진다.

총 5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양시는 대회 현장에 VR 체험, 보드게임, 사진 부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운영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창작발레「표류」

오는 9월 5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춤으로 풀어낸 창작발레 ‘표류’가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창작발레 ‘표류’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광양시가 선정되며 마련된 공연으로, 섬에 머물게 된 한 남자가 자연의 신비로움을 깨닫고 자연의 힘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2009년 ‘슬픈 초상’으로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실력파 발레단체 문영철발레뽀에마가 이번 공연을 맡아,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제8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양시와 한국예총광양지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8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남해안남중권 소속 시군 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간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에는 작품전시,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작품전시에는 회화, 서예, 사진 등 180여 점의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경남·전남 출신 초대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흥을 더할 예정이다.

□ 제15회 광양만권화합 콘서트

오는 9월 20일, 광양 서천변에서는 여수MBC가 주관하고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세 도시가 공동 후원하는 ‘제15회 광양만권 화합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공동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구성원에게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문화 기반 조성과 건전한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광양만권 공동도시인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광양만권 지역의 가족, 직장, 동호회 등 3인에서 15인 이하의 팀으로, 최대 300명(15명×20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선 경연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개~10개 팀은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며, 본선에는 초대 가수 3~4팀이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광양시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2023년 9월, 광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관광·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해 맺은 교류 협력의 결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위치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와 함께 국내외 유수의 미디어 작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더욱 풍성해진 개막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젊고 감각 있는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창작품을 전시한다. 그 밖에도 미디어아트 포럼, 미디어아트 랩(lab) 등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르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열린다.

남도영화제 시즌2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지역의 문화자원과 영상예술을 접목한 체험형 영화제다. 2023년 순천에서 시즌1이 처음 개최된 이후 지역의 문화자원과 영화 콘텐츠를 결합한 로컬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광양 개최를 통해 전남 문화의 폭과 영화 산업 기반 확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광양시민광장, CGV광양, 광양문화예술회관, 광양항(스타인벡코리아 부지) 등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은 23일 광양시민광장과 야외공연장에서, 폐막식은 27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개최되며, 20개국 65편의 영화가 경쟁·비경쟁 부문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 월남사 소장 고려시대 불경, 전라남도 유형유산 지정

고려 중기 불교문화 이해 중요 사료 월남사지 일대 문화관광 기틀 마련

강진군 성전면 월남사가 소장하고 있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 제16’이 2025년 4월24일자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강진군은 귀중한 고려시대 불교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전면 월남사지 일대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 제16’은 고려 중기인 12~13세기, 당시 지방관이었던 김강정이 발원해 백지에 직접 필사한 불교 경전이다. 보현사 주지 활원이 이를 교정했다는 사실이 권말에 기록돼 있다. 이는 고려시대 사경(寫經)의 제작 방식과 당시 불교계 인물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해당 불경은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필사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백지묵서본이며, 보관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이는 고려대장경 인출본과는 다른 사간본 형식으로, 현재 남아있는 동일 경전류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권말에 기록된 ‘을사년’ 필사 연대는 향후 정밀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사경 연대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유형문화유산 지정은 단지 고문서 하나의 보존에 그치지 않는다. 월남사는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고찰로, 진각국사 혜심이 중창하고 최씨 무인정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사찰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집약된 공간에 있는 유산의 지정은 월남사지 일대를 역사문화와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강진군은 이번 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월남사지 주변 관광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월남사 건물지 중창을 비롯해 도량의 완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월남사 일대를 생태관광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시, 올해의 책 ‘카페 네버랜드’ 최난영 작가 콘서트

오는 5월 14일 동신대 한방병원 대강당… 선착순 150명 모집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5 나주시 올해의 책에 ‘행운이 구르는 속도’, ‘달리는 강하다’, ‘카페 네버랜드’, ‘내면소통’을 선정하고, 이 중 ‘카페 네버랜드’ 최난영 작가를 초청해 ‘한 책 톡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대강당 2층(빛가람동)에서 개최되며,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을 통해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카페 네버랜드’ 한 책 톡 콘서트는 나주시 관내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나주시 시립도서관, 동신대학술정보문화원, 전라남도교육청 나주도서관, 남평도서관이 지역민들의 독서 및 문화 진흥을 위해 함께 참여한다.

문학 분야 올해 책으로 선정된 최난영 작가의 ‘카페 네버랜드’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카페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 소설로, 운영 담당자 연주와 사고뭉치 노인 4인방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 간의 단절이 일상화된 요즘의 풍경에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좋은 책을 다 함께 선정하고, 같이 읽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나주’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